

# “어젯밤 다가온 무정설법을 어찌 설명할 수 있으랴”

## <35> 소동파(蘇東坡) 거사

송대에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유학을 바탕으로 해 불교를 섭수하는 풍조를 이워 이른바 사대부 거사불교의 전성기였다. 기라성 같은 수많은 거사들이 활약했는데, 그러한 거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사를 꼽자면, 바로 소식(蘇軾) 거사다.

소식(1036~1101) 거사는 자(子)는 자瞻(子瞻)이고, ‘동파(東坡)’는 자호이다. 거사의 부친은 소순(蘇洵), 동생 소철(蘇轍)과 함께 ‘삼소(三蘇)’라고 칭해지고, 이들 모두 유명한 문장가로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한다. 거사의 부친인 소순은 진사에 합격하지 못하자 심양(溱陽)의 여산(廬山)에 가서 원통거늘(圓通居士) 선사를 접안해 법을 배웠다. 가우(嘉祐: 1056~1063) 원년에 삼부자는 상경해 한림학사인 구양수 거사에게 소순의 글을 22편 올렸다. 이 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당시 사대부들이 다투어 읽게 됐고, 재상인 한기(韓琦)에 의해 추천으로 과거를 면제받아 비서성교서랑(秘書省校書郎)의 관직을 받았다. 그해 가을에 거사 형제는 진사에 합격했고,

소동파 거사는 급제 후 구양수와 한기 등의 저극적인 후원에 따라 중용됐다. 그러나 직언을 하는 성격 탓에 순탄치는 않았다. 후에 왕안석(王安石)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집권해 ‘신법(新法)’을 시행하자 그에 비판적이었던 거사는 지방근무를 자청해 항주(杭州), 밀주(密州), 서주(徐州), 호주(湖州) 등의 지방관을 역임했다.

거사가 항주의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기에 많은 고승들과 교류했다. 항주는 오월(吳越) 이래로 중국불교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승대덕이 활동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거사는 “오월에는 명승들이 많아 나와 항상 교류하던 스님이 19명에 달했다”(《동파지림(東坡志林)》 권2)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내가 오월에 있을 때, 항상 오공(五公)을 보았는데, 교학으로 변(辯)·진(辯)이요, 선(禪)에는 런(禪)·송(嵩)이다”(《동파후집(東坡後集)》 권16)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은 바로 해월해변(海月慧辯)과 변재원정(辯才元淨) 대사이고, ‘진’은 남병범진(南屏梵禪), ‘런’은 대



그림 · 김홍인

자세히 논할 여유는 없지만, 이 시기의 선사상에 노장(老莊)에서 제창하는 ‘도(道)의 편재(遍在)’ 사상이 깊이 개입돼 있음이 짐작된다.

여러튼 거사의 이 오도송은 지금도 ‘무정설법’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법연에 따라 거사는 <거사분등록>과 <거사전> 등에 상송 선사의 사법제자로서 전한다.

거사는 또한 불인료원(佛印了元) 선사와도 깊게 교류하고 있는데, 도옹(道融)의 <송림성사(叢林盛事)> 관상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거사가 불인 선사를 방문하자 선사는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어 모실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거사는 “잠시 선사의 육신을 빌려 앉겠습니다”라고 하자 선사는 “질문이 있는데, 만약 대답할 수 있으면 앉게 하겠지만, 답하지 못하면 거사의 육대(玉帶)를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거사는 질문하라고 답했다. 선사가 “거사는 방금 전에 이 선승의 육신을 빌려 앉겠다고 했는데, 육신은 본래 빈 것(空)이요, 오음(五陰: 五蘊)도 있는 것이 아니니, 어디에 앉겠습니까?”라고 묻자 거사는 답하지 못했다. 이에 거사가 육대를 풀어놓고 크게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자 선사는 행각 할 때의 납의(納衣)를 거사에게 주었다. 이에 거사는 계승을 세 수 올렸고, 선사는 두 수의 계승으로 화답했다.

이러한 일화에서 거사와 불인 선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거사와 불인 선사의 교류는 이미 황주의 유배시기로부터 시작됐으며,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권29에서는 둘의 관계를 ‘묘한 문구를 주고받음이 연기와 구름이 다투고 짝을 이룸과 같다(鵲的妙句, 煙雲爭麗)’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종(神宗)이 죽고(1085) 철종(哲宗)이 즉위하면서 선인태황후(宣仁太皇太后)가 섭정을 시작해 왕안석이 세운 신법을 폐지하면서 거사는 다시 중용돼 예부랑중(禮部郎中), 중서사인(中書舍人)·한림학사지제고(翰林學士知制誥) 등의 요직에 올랐다. 그러나 선인태황후가 죽고 소성(紹聖)년간(1094~1098)에 신법을 부활시켜 거사는 다시금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결국 해남도(海南島)로 유배됐다.

휘종(徽宗)이 즉위하면서 제거육국관(提舉玉局觀)이라는 관직에 봉해져 상경하던 도중 큰 병을 얻어 상주(常州)에서 66세로 생을 마감했다. 평생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유작으로 <동파전집(東坡全集)> 115권, <동파역전(東坡易傳)> 9권, <동파사전(東坡書傳)> 13권, <동파지림(東坡志林)> 5권, <동파사(東坡詞)> 1권 등이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불운했지만, 거사의 작품에는 당시에 유행한 후기 조사선사상으로부터 현대·화업의 교학과 심지어 정토와 관련된 글까지 있어 해박한 불교사상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거사는 불교사상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바로 송대 거사불교의 귀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온 가족 불교 귀의... 동생 소철 거사 도전 선사 문하로 큰 영향 받은 해변 대사 입적 후 ‘해월변공진찬’서 애도

다음해 예부(禮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나란히 급제했지만 모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거사의 모친 정(鄭)씨도 독실한 불자여서 입목에 앞서 모친이 평생 지녔던 물건들을 사찰에 희사했다. <거사전> 권26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공에게 아미타불상을 그리게 했고 <아미타불승(阿彌陀佛頌)>을 찬술했다고 전한다. 모친상을 마치고 수도인 개봉(開封)으로 돌아와 거사의 형제는 관리임용 특별시험인 제과(制科)에 함께 급제했다.

이렇게 소동파 거사의 모든 가족은 불교에 귀의했다. 특히 동생인 소철 거사는 균양(筠陽: 현 江西省高安)에 유배당했을 때, 황벽도전(黃巖道全) 선사에게 귀의했고, 진정극문(眞淨克文) 선사와의 평생을 참문하는 도우(道友)였다. 소철 거사는 향성순(香城順) 화상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궁한 일을 녹여, 하나의 마음을 만들었으나, 이 마음마저 두지 않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렀구나(融却無窮事, 都成一心. 此心仍不有, 從古至今)”라는 계승을 올렸다.(《종림성사(叢林盛事)》 권하)

각회련(大覺懷璉) 대사를 가리키며, ‘승’은 바로 명교설승(明教契嵩) 선사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해변, 변재, 범진 대사는 모두 천태종의 승려이고, 회련과 설승은 선승이다. 이러한 ‘오공’ 가운데 거사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이가 해변 대사이다.

해변 대사는 당시 황주의 승정(僧正)으로 “세속의 학문과 교화에 모두 정통한” 승관으로, 거사가 교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해변 대사의 입적 후 <해월변공진찬(海月辯公眞贊)>을 찬술하는데, 여기에서 해변 대사를 ‘도덕과 재지(才智)를 갖춘 대사’로 표현하며 깊은 애도의 정을 나타냈다.

거사가 선학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한 계기는 바로 황주(黃州: 현 湖北省 黃岡縣)로 유배를 간 사건이다. 거사는 호주 지사(知事)로 있던 시기에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는 죄목으로 어사대(御史臺)에 체포돼 수도로 호송됐다. 이때 어사들의 심문과 거사의 변명을 담은 기록이 <오대시안(烏臺詩案)>에 남겨져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다행히 사형을 면한 그는 100일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황주의 단

련부사(團練副使)로 좌천됐다. 사실상 유배였던 이 시기에 거사는 부인과 양자를 하고 농사를 짓는 등 비참한 생활을 했다. 이에 스스로 ‘동파(東坡: 동쪽 언덕)’라는 호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처지를 담은 것이다. 이 시기에 거사는 유명한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

거사가 황주에서 5년의 유배를 끝내고 여주(汝州: 현 河南省 臨汝)의 지사로 가던 중,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목게 되면서 동생과 친밀한 진정극문 선사와의 인제종의 황룡혜남(黃龍慧南)의 법사인 동림상종(東林常總) 선사를 접안했다. 밤새워 상송 선사에게 ‘무정(無情)설법’을 듣고 거사는 깨달음을 얻었다. 거사는 새벽에 “깨울 물소리는 장광설이요, 산 빛이 어찌 청정한 몸이 아니라, 어젯밤 다가온 이 무량한 소식은, 어떻게 그대에게 설명할 수 있으랴(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舉似人)”(《오동회원》 권17)라는 유명한 오

도송을 상송 선사에게 올렸다.

이 ‘무정설법’은 이른바 ‘푸르고 푸른 대나무가 모두 법신이며, 활짝 핀 노란 꽃이 반야 아님이 없다(靑靑翠竹, 盡是法身, 鬱鬱黃華, 無非般若)’의 긍정 여부를 두고 중국불교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논쟁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선종에서 하택신회(荷澤神會) 선사는 “만약 푸른 대나무와 노란 꽃으로 법신, 반야와 동등하게 한다면 이는 곧 외도(外道)의 설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반경(涅槃經)>에 불성이 없는 것은 이른바 무정물이라고 밝힌 글이 있다”(《신회어록(神會語錄)》)라는 반박으로부터 <육조단경>, 나아가 대주해해(大珠慧海)의 <돈오입도요론(頓悟入道要門論)>에서도 부정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송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무정설법’이 승인되고 있음은 이미 불교와 선사상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종사상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에서

### 불자 정보

733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 사찰 (금) 안내

- 위치: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2억

011-9402-9306

####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입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북 청주 병명초등학교 옆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 탱화, 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즉시법회가능,역화 보살님도 가능

010-8283-5251

####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 은행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정종화약국 옆 건물 2층
- 2층 50평 법당, 방2개, 주방 별도
- 삼존불,신중,후불,약사여래 탱화,시설 일체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2만원 시설비 일체 : 2,000만원

011-862-8275  
010-7100-0863

#### 사찰터(금)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외룡산 자락
- 면적 답 300평, 입야 200평
- 임시주거지 70평(몬테이너)
- 계곡물이 좋고 산세 수려한곳 바다가보이고 저수지 옆
- 가액: 평당 10만원

055)855-5950  
018-622-9865

#### 사찰 (금) 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도개면
- 사찰 부지터 대지 68평
- 법당 14평(기초공사완료)
- 요사채 13평 완료
- 주차장 이용가능
- 가액: 4천 5백만원

011-503-8989  
010-8589-6552

#### 암 자 안내

- 위치: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요사채, 옆산, 연꽃 연못, 텃밭, 마당잔디
- 총 320평
- 임대보증금 35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1억1천만원

017-813-9126

##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시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